

마이스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인센티브 지원

전주시, 전시·회의 행사 개최 인센티브 제공... 장비·행사장 임차료·행사 인쇄물 제작 등 최대 2500만원

전주시가 크고 작은 전시·회의 등을 유치해서 지역 마이스(MICE)산업을 키우기로 했다.

시는 마이스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4년 전시·회의 행사 개최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주에서 2일 이상 전시·회의 행사를 개최하는 주최·주관 단체 또는 위임받은 기관(POO 등)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지원금 수령 시 50% 한도 내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전주시가 크고 작은 전시·회의 등을 유치해서 지역 마이스(MICE)산업을 키우기로 했다.(지난달 26일 열린 '전주시 전시·회의산업 지원위원회' 개최 모습)

지원항목은 △행사 개최를 위한 장비·행사장 임차료 △공식 오찬·만찬 △행사 진행을 위한 인쇄물 제작 등으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최대 2500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특히 전주에서만 즐길 수 있는 독특한 정취를 가진 전주한옥마을과 팔복예술공장, 완관본문화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치명자산산성지 평화의전당, 왕의지밀, 더메이호텔, 울드브리카페 등 8곳이다.

단, △전주시 예산을 별도로 지원받는 경우 △정치·종교·스포츠·친목·특강·순수관광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경우 △그 밖의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이 금지된 회의 및 행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4년도 전시·회의 행사 개최 인센티브 지원 절차와 지원내용 등은 전주 시청 누리집(www.jonju.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달 26일 마이스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전주시 전시·회의산업 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 전시·회의 행사 개최 인센티브 지원 계획(안)'에 대한 자문과 협의를 거쳐 기준안을 마련했다.

시는 이를 토대로 국내외 마이스 박람회 참가와 관계자 팸투어 등 다양한 홍보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대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마이스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관광 자원과 마이스 인프라를 활용해 앞으로 지속적인 마케팅을 추진하고, 마이스 행사 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립 삼천도서관이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책과 문화, 예술을 즐길 수 있는 '토요가족극장'으로 제정된다.

삼천도서관 '토요가족극장' 운영

23일~11월 25일 매월 넷째 주 토요일 공연·체험 진행

전주시립 삼천도서관이 가족과 함께 책과 문화, 예술을 즐길 수 있는 '토요가족극장'으로 제정된다.

삼천도서관은 오는 23일부터 11월 25일까지 매월 넷째 주 토요일과 8월 여름방학, 9월 독서의 달 기간에 만날 수 있다.

삼천도서관은 토요가족극장 운영을 위해 전북에서 활동하는 극단과 공연자들을 섭외해 지역 공동체와 협력하고 예술인들에게 활동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첫 번째 공연은 오는 23일 갈갈갈인형극단의 다문화 이해 인형극 '사랑에 빠진 개구리'가 펼쳐진다.

이어 매월 △어린이 과학 미술공연 '백작사이언스'(4월 27일) △미술공연 '달콤한 무한상상'(5월 25일) △인형극 '팔죽할머니와 호랑이'(6월 22일) △미술공연 '책과 함께 하는 동화술사'(7월 27일) △낭독극 '이파라과 나무나무'(8월 10일) △인형극 '플라스틱 통키호테'(8월 31일) △미술공연 '버블 매직쇼'(9월 14일) △인형극 '토끼와 거북이'(9월 28일) △풍선체험 공연(10월 26일) △인형극 '양치기 소년 시로'(11월 23일)가 각각 예정돼 있다.

삼천도서관 토요가족극장 참여 신청은 전주시립도서관 누리집(lib.jonju.go.kr)에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81-6464~5)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관련 시는 전주 곳곳에 위치한 시립도서관이 책과 독서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넘어 복합 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각 도서관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강준 전주시 도서관본부장은 "전주시는 도서관을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며 "이번 문화공연을 통해 도서관이 시민들의 즐겨 찾는 장소가 되어 온 가족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쉼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우범기 전주시장, 청년주거공간 현장점검 나서

효자동 청년매입대주택 리모델링 현장·송천동 늘푸른마을 임대아파트 방문

우범기 전주시장은 13일 완산구 청년매입대주택 리모델링 현장과 송천동 늘푸른마을 임대아파트를 차례로 방문해 현황을 청취하고 시설물을 점검했다.

전주시가 운영하는 청년매입대주택은 무주택 미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학교 주변의 기존 주택을 매입해 청년들에게 시세의 4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기본 계약기간 2년에 4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 청년들은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우 시장이 이날 방문한 효자동 청년매입대주택은 현재 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시는 리모델링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만든 후 오는 6월부터 청년들에게 총 13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 자적은 무주택인 미혼 청년으로 19세~39세 청년, 또는 대학생, 취업준비생이며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우 시장은 이어 덕진구 송천동 소재 늘푸른마을 임대아파트 현장을 찾아 입주 현황과 시설물 등을 점검했다.

늘푸른마을 임대아파트는 근로 청소년의 주거 문제를 해소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난 1986년 12월



우범기 전주시장은 13일 완산구 청년매입대주택 리모델링 현장과 송천동 늘푸른마을 임대아파트를 차례로 방문해 현황을 청취하고 시설물을 점검했다.

지상 5층 2개동에 연면적 4059㎡, 총 100세대 규모로 지어졌다.

현재 늘푸른마을 임대아파트에는 보증금 30만 원에 임대료 월 6만8000원의 저렴한 가격에 만 40세 이하 여성 근로자들이 거주하고 있다.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보수 및 환경개선 공사를 실시하는 등 입주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

해 노력하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시는 청년들의 주거·생활비 부담을 줄여 미래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바탕으로 청년이 정착하는 젊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재활용 전문가 양성 특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주시가 재활용 전문가 양성에 나섰다. 시는 오는 22일까지 역량 있는 재활용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전주시재활용센터 '다시봄'에서 진행되는 이번 교육에서 수강생들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업사이클 현황과 과제 △지원순환 정책 △재활용 감의 시연 등 이론교육과 체험 교육을 받게 된다.

이후 수강생들은 오는 22일에는 완산구 삼천동에 소재한 소각장과 매립장, 리사이클링타운을 견학하며 생활 폐기물의 중간 및 최종 처리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교육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현황을 방문해 폐기물 처리 과정을 직접 학습할 수 있는 만큼 환경오염 예방과 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역량 있는 재활용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양성된 재활용 전문가는 학교와 기업, 단체 등 시민에게 재활용을 전파하는 교육자로 활동하게 된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완산구, 공원 내 노후시설물 순차적 정비 추진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배희곤)은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을 맞아 공원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 시설물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는 우선 용호근린공원 내 노후된 계단 3개소를 정비하고 이끼가 생기고 부서진 목재울타리를 보수, 도색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서신길공원을

내 운동기구와 벤치와 같은 편의시설물의 도색작업을 시작으로 정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배희곤 완산구청장은 "공원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시민들이 편안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공원 노후시설물의 정비를 추진하여 도심 생활권 속 안락한 쉼터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이었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관풍각

내아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출: 전주시 제공)